

##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이 정 기  
(서강대학교)

김 윤 영\*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2명을 면접하여 이들의 비수급 사유, 실제 삶의 모습과 빈곤에 대한 대응 방식 및 정서적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얻고 이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박당한 개인 상황', '수급권을 막는 장벽', '빈약해진 사회자본', '심리적 위축', '악화되는 경제력', '절대빈곤의 현실', '생존권의 배제', '불공평한 세상', '공동체의 미풍(微風)', '취약한 가족 기반', '주도적 삶의 지향', '필사적 생존 전술', '체념에 빠진 일상', '수급권에 대한 양면감정' 등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범주들은 공공부조 배제에 따른 중심현상과 이에 대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험과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이론화될 수 있었다. 핵심범주는 '비인간적 상황에 필사적으로 적응하기'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의 다양한 상황들이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정리하고 각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사각지대, 빈곤문제, 근거이론, 절대빈곤,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본 논문은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과제명: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 교신저자: 김윤영, 서강대학교(i180cm70kg@gmail.com)

■ 투고일: 2016.4.30    ■ 수정일: 2016.6.27    ■ 게재확정일: 2016.6.29

## I. 서론

복지국가에서 사각지대의 존재, 특히 소득재분배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층인 빈곤계층에 비수급 인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부조 제도의 운용과 효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빈곤에 대한 제도적 정의와 실제하는 빈곤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확한 운용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포용되지 못한 빈곤의 양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빈곤율을 7.8%(김문길, 2012)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를 전 인구의 약 2.8%(약 140만 명)로 추산할 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는 전 인구의 5%(약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김미곤, 2014). 그런데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년 전격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전 통합급여 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였다. 개별급여 전환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하여 신규 수급 예상 인원은 연구에 따라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약 12만 명(김윤영, 2015)에서 76만 명(보건복지부, 2014)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현재까지도 약 200만 명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모집단 조사와 행정자료를 통한 추계치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빈곤은 인류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 해왔으며,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 깊숙이 각인된 친숙한 삶의 한 방식이다(문진영, 2015). 하지만 빈곤 현상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빈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빈곤층 당사자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빈곤층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김미곤 등, 2013)하다. 이는 빈곤 개념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며, 지나치게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김교성, 2011). 즉, 정책 공급자의 시각에서 빈곤계층은 타자화된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는 비교적 자료 축적이 가능한 양적 연구에 초점이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이하 등으로 표상되는 통계 수치에 갇혀 정태적인 결핍의 상태로 이해되기보다는 사회적 배제와 같은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경험으로 인식(문진영, 2004)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를 실증적으로 환원하는 계량 분석을 넘어서,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이 제기(김미곤 등, 2013; 김교성, 2011)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부모, 노인, 장애인, 자활대상을 포함한 일반 가구 등 여러 비수급 빈곤층의 유형별로 서너 명씩 총 12명의 연구참여자를 면접하고 관찰한 질적 자료를 사용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조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생존 과정은 어떠한가?’를 본 연구의 질문으로 정하였다. 즉, 비수급 빈곤층의 실제 삶의 현상과 빈곤에 대한 적응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 1.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를 가진 개인이나 가구가 다른 적절한 수단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구인회, 백학영(2008, pp.178-179)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사각지대는 프로그램 적용 대상(programme eligibility)에서 제외된 집단으로, 법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서 근로 능력자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각지대는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적용범위(programme coverage)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들이나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구직급여 지분을 거절당한 실직자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각지대는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적용범위에도 속하지만, 실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자(non-take up)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리라 예상되지만, 정보 부족이나 사회적 낙인 등의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이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경상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이다.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그 조건에 안타깝게 비껴가거나 미세하게 나은 생활을 하는 계층은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 수혜자 자격을 받지 못하는 계층 즉, 차상위계층 혹은 소외계층”(김원섭, 2013, p.8)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면서 기초보장제도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의2)에 규정된 차상위층도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120% 사이인 준빈곤가구의 일부와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이면서 기초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즉 비수급 빈곤층이 구성된다고 이론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어서 비수급 빈곤층의 정확한 추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대개는 빈곤율과 수급률을 서로 비교하여 그 규모를 추산한다. 엄격하게 소득환산제로 추정된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연구는 이태진 등(2011)에서 밝혀낸 171만 명이 거의 유일하며, 이는 사각지대 규모를 추계를 위한 주요 기준점이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상호복합적인데, 대체로 실재적 빈곤선과 정책적 빈곤선(소득인정액)의 간격,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일선 행정에서의 자의적 배제, 자발적 배제 등 네 가지 형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정기, 문진영, 2015). 첫 번째 요인과 관련해서는, 빈곤 측정을 위해 개인 혹은 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책적 빈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사용하고 있다. 즉, 소득과 함께 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개인과 가족에게 빈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제를 말한다. “자력에 의한 노력”, “가족에 대한 일차적 책임”(법 제3조)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자산조사를 거치기 전에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급권 배제, 실질적 권리구제의 미흡, 정보의 제한 등 수급권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임의적 배제, 일선 행정의 정보력, 전문성, 수급

자 발굴 의지 부족 등에 의한 배제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적 판단능력 부족, 신청주의 위주의 행정으로 인한 배제가 자의적 배제의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은 만성 빈곤, 장기 실업, 빈곤문화의 세습,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자포자기, 스티그마(stigma)에 대한 거부감, 노숙자, 알콜 중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제의 유형이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지난 15년이 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획기적인 변화 없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는 추정에 별다른 반론은 제기되지 않는 형편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송파 세 모녀 사건 직후에도 그러하였듯이 정부는 복지급여의 '신청'을 강조하였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300여 가구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를 조사(김윤영, 2015)한 바에 따르면 70% 이상이 이미 기초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을 하였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이유로는 54.5%의 비율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배제로 추정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8.3%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여겨진다.

## 2. 비수급 빈곤층에 관련된 선행연구

빈곤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들은 대체로 물질적인 결핍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소득접근법(income-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넘어 Sen은 빈곤을 단지 소득이 낮은 것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잠재능력의 박탈(deprivation of capability)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Sen, 1999, p.87)함으로써 빈곤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의 빈곤 연구의 경향(De Haan, 2000)을 주도하게 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비수급층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발한다. 이는 동태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특성(Berghman, 1995)에 중심을 두고 노동시장에서, 시민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결국 생존권 박탈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Levitas, 1999).

제한적이거나 비수급 빈곤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국내 공공부조 정책 연구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연구로서, 비수

급 빈곤층을 포괄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최저생계비를 추계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3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김미곤 등, 2005; 여유진 등, 2008; 김미곤 등, 2011; 김태완 등, 2014)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욕구를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2003년과 2006년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신영석, 이현주, 이연희, 신현웅, 정형선, 윤석준, 2004; 이현주 등, 2007)를 들 수 있으며, 김미숙 등(2009)과 이태진 등(2011)은 복지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연구를 비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실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파악 및 축소를 위한 정책 연구이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여유진, 김미곤, 김상균, 구인회, 오지현, 송치호, 2009)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여유진, 김미곤, 김문길, 정재훈, 홍경준, 송치호, 2011)도 이루어졌다. 그밖에도 집단별로 빈곤층의 현황과 그 발생 원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홍경준, 2003; 윤홍식, 2003; 이현주 등, 2005; 김미숙 등, 2009; 허선, 권선진, 2009; 구인회, 백학영, 2008; 박능후, 2008 등)이 선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연구들은 대부분 정책 연구자의 관점에서 빈곤층을 정책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빈곤에 처한 개개인의 개인사와 그를 둘러싼 환경이 빈곤의 진행과 이행에 어떠한 맥락과 조건으로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관해서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로부터의 관점(top-down approach)’에 문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서 빈곤층의 경험과 행위의 맥락에 대한 통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정서적 변인들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미곤 등, 2013)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최근 수급과 비수급을 가로질러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련 연구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빈곤층의 생애주기별 혹은 특정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청소년(김경희, 박근혜, 2010), 한부모 가족(이기연, 박현정, 2015; 최정경, 이광호, 2015), 여성(노혜진, 2012; 2013), 장애인(양정빈, 2015; 이광원, 부성은, 김영채, 2016), 쪽방촌, 쉼터 노인(권지성, 한가영, 2008; 박정민, 탁정한, 2014), 자활사업 참여자(백학영, 조성은, 2014; 정혜숙, 2015),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김진우, 2012)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양식이나 생애사, 정책 사각지대와 같은 다양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빈곤은 각 대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은 한부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이기연, 박현정, 2015; 최정경, 이광호, 2015), 청소년의 인지 발달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로 변경, 좌절에 빠지게도 한다(김경희, 박근혜, 2010). 또한 여성에게 빈곤은 소득 결핍을 넘어 과도한 노동이나 권력의 부재 등과 같이 복합적인 문제이다(노혜진, 2012). 장애인에게는 재활과정과 더불어 빈곤은 “참기 힘든 충격들”이다(이광원, 부성은, 김영채, 2016). 쪽방 거주 노인들의 생활 경험은 ‘떠밀려남, 버텨 살기, 가깝고도 너무 먼 그 곳, the others’로 명명되는 낯선 타인의 삶이었다(권지성, 한가영, 2008).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수급과 자활사업 참여는 빈곤해진 삶에서 자신과 가구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부분적인 선택의 주체가 될 뿐이었다(백학영, 조성은, 2014).

이러한 연구들은 공공부조 정책 분석을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빈곤층에 중심을 두고 질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경희와 강병철(2013)은 한국복지패널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 가구의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빈곤 가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분노, 미래 불안감, 우울, 자살 충동, 자존감 저하, 고립, 가족 갈등,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 낙담을 경험한다고 분석하였다. 김윤영과 권진(2015)은 비수급 빈곤층의 열악한 삶을 분석하고 사회적 타살에 내몰리는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 지원을 역설하고, 빈곤 가구의 사례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언어로 경청하였다는 연구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빈곤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다양한 요인과 그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특히 삶의 조건으로서 사회구조적 체계들이 빈곤의 경험과 삶의 대응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빈곤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특정 집단에 국한한다면, 비수급과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담론이나 이론적 논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관한 질적 연구는 특정 사례연구들을 제외하면 아직 충분한 양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사각지대 파악 및 축소라는 제도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기능적 연구뿐 아니라, 비수급

빈곤에 처해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현상과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질적 증거 기반의 정책적 제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근거이론은 사회학적 패러다임인 상호작용론을 근간으로 삼고 있어 관계적 속성을 파악하고 드러내는 데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형성하는 상호작용들과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로 근거이론이 목표하는 것은 실체를 잘 표현하는 이론(substantial theory)의 구성이다(홍현미라, 2008, p.16).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상과 생존 전략이 형성되는 데에 있어 개인 및 가족, 제도와 지역사회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론화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실제이론의 연구대상은 실재하는 자료라는 점이 강조되기에,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사회복지사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섭외하여, 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기초생활보장에서 각종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저소득자를 각 1인씩 추천받아 면접을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만 2개월간이었으며, 총 12명의 연구참여자를 만나 순차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환경을 관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22세 미혼모부터 83세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른 연배와 성별 분포를 보였으며, 미혼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혼이었으나 그 중 이혼자가 네 명, 사별자는 세 명이었고, 법적 혼인은 유지되나 별거 중인 사례도 있었다. 여섯 명은 전혀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주방일을 하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나 고물 수집 등을 하며 모두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달되는 소득 상태를 나타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의 표집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진 사실은, 지역별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빈곤의 과정을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6; 1998)의 근거이론 방법에 따랐는데, 근거이론은 분파의 형성과 인식론적 논란이 많으므로(김인숙, 2012)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에 주력하였다. 즉,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해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를 한 후, 축코딩(axial coding)으로 범주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하여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과정을 해석하였다.<sup>1)</sup>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를 위해서는 Padgett(1998)이 제시한 사항들을 참고하였다. 진솔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짧은 시간에도 최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원화(triangulation)를 위해 관찰자료, 문서 기록도 참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빈곤 및 사회정책을 전공한 다수의 동료 연구자들을 통해 연구참여자 선정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 진행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 자료와 연락처 등의 개인사항은 연구가 종료된 즉시 폐기하였으며, 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과정,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개념화 및 범주화

개방코딩으로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8개의 코드(codes, in vivo), 34개의 개념(concepts), 14개의 범주(categories)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

1) 근거이론 방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선택 가능(Creswell, 2007/2010, p.103)한 상황모형은 본 연구결과에 따로 제시하지 않고 결론에서 함의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Strauss와 Corbin의 방법을 따르는 많은 국내 연구에서 유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참여자 특성상 비수급 빈곤의 경험과정이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형분석이 오히려 이론적 일관성을 침식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표 1. 개념화 및 범주화의 결과

코드	개념	범주
장애가 있는 손자 때문에 일을 나갈 수가 없음,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 시골로 가면 고물 수집을 할 수 없음, 수입에 도움이 되면 뭐라도 하려는데 걱정임, 애가 어린이집 갈 시간밖에 일할 수 없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을 떠안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음	불가항력적 조건	결박당한 개인 상황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 밥을 잘 못 먹음, 국민연금이 나와서 약 사먹고 나머지로 생활함, 건강이 나빠 불면증 약을 먹고 잠, 아파트 경비로 일하다 아파서 그만둠, 건강이 제일 힘든 부분임, 내가 병들었다는 자체가 불행임, 병이 많아 약으로 삶, 무릎 수술을 해서 활동을 못함	악화된 건강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들 때문에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음, 십년 단절된 딸의 소득이 높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음,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안 된다고 하여 포기함, 조건부 수급자였는데 직장 다니는 아들 때문에 중단됨, 사위 월급이 많아서 수급이 끊김, 이혼을 했는데 남편 이 소득이 많아 수급이 안 됨, 친정 아빠 때문에 수급이 안 됨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수급권을 막는 장벽
월세도 못 받는 본인 명의의 집이 있음, 까다로운 선정 조건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함, 차상위를 신청했는데도 탈락함, 수급자였다가 공장에 다니면서 탈락함	맞추기 힘든 수급 조건	
기초보장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음,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 탈락 사유를 잘 모름, 연금 받는 법도 몰라서 2년 지나서 했음	수급 정보 부족	
외출은 상상도 할 수 없음, 혼자 살며 친구도 없음, 파지를 줄기 위해 교회 출석도 줄임, 술 담배를 안 해서 친구가 다 끊어짐, 돈이 들어 노인정에 가지 않음, 솔직히 친구도 없음	사회관계 도피	빈약해진 사회자본
동생이 오라고 해도 갈 수 없음, 아با에게 친권을 포기해 달라고 했음, 기초수급을 신청했다고 아들에게 야단맞음, 아바가 몇 번 도와주고 연락이 안 됨, 애 아바 부모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함, 동생한테 전화하면 싫어함, 친아버지에게 전화하면 끊음	무너진 가족관계	
이혼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짐, 구직활동이 두려움,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풀어 상처를 줌, 심리치료를 받고 있음,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음	자존감의 추락	심리적 위축
친구가 사준 비싼 식사에 거부감이 들어서 절교함, 거지같이 살아서 목사님도 오지 말라고 했음, 소문이 날까봐 친구한테도 어느 정도 선만 얘기함	열등감의 형성	
사각지대에서 죄인처럼 살고 있음, 세금을 내지 않으니 바라는 것도 없음, 얽혀사는 누님에게 눈치가 보임, 딸에게 가책을 가지고 있음, 월세를 못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복지관 기준으로 하도록 내버려 둬, 경로당에서 시간을 때움	왜소한 존재감	
집세를 못 내고 나가래도 갈 곳이 없음,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임, 집세 내는 것이 가장 어려움, 길에서 사는 인간이 될까 걱정임, 집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음, 월급이 80만원인데 월세가 30만원임	주거비의 부담	악화되는 경제력
젊을 때 번 돈으로 생활함, 계속 일해서 조금 모아둔 것으로 월세를	줄어드는	

코드	개념	범주
냄, 빛은 없고 좀 모은 돈으로 생활함, 파지 줌은 일을 다들 못하게 함	잔고	
밥 사먹고 싶는데 돈이 없음, 잘사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하니까 지원이 필요함,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음, 상황이 다급한데 결만 보고 얘기하니 까 미치고 팔짝 땀	긴급지원의 필요	절대빈곤의 현실
늘 통장에 돈이 간당간당함, 파지 줌은 일로 생활이 안 됨, 한 폰도 쓴 게 없는데 돈은 안 모임, 생활비는 맨날 부족함, 생활비도 없는데 장기요양을 쓸 수 없음	만성화된 빈곤	
건강검진 결과 보기를 회피함, 치과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함, 여러 군데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감,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약간 아플 때는 안 감, 약값도 무시를 못함, 큰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까 봐 꺼림, 제일 애로가 병원비임, 애들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 겁이 남, 애기가 아팠는데 병원에 못 데리고 감	공포스러운 의료비	
싱크대가 새서 화장실에서 씻음, 겨울에 추워서 잠이 안 옴, 작년 여름에 창문도 안 열리고 선풍기도 못 틀	불량한 주거 상태	
통장 봉급 20만원으로 생활함, 자식이 있어서 기초보장 안 되고 노령 연금만 받음, 일주일에 사나흘 일용직으로 생활을 유지함, 일거리가 불규칙하게 있음, 고물을 주워 생활함, 하루 종일 일해도 5천원도 못 뵈, 화장실 청소로 살기는 삶,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0만원을 탐	비현실적 저소득	생존권의 배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 복지관의 도움을 받지 못함, 컴퓨터나 뭐라도 배우려 했는데 추천에서 떨어짐, 교회의 이웃구제 현금 혜택도 자격이 안 됨	제도적 지원의 제한	
연줄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필요 없는 사람들이 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음, 수급 혜택이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함, 뉴스를 보고 부정수급에 불만을 가짐,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수급을 받음, 우리 빼고 거의 다 수급자임	수급제도에 대한 불신	불공평한 세상
외국인들과 임금이 똑같아서 불만임, 받다가 안 받으니 애로사항이 많음, 모든 게 차단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은 없음, 남들보다 일당을 적게 받음	사회적 박탈감	
식료품 지원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됨, 복지관에서 점심을 주어 다행으로 생각함,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전화를 해서 외롭지 않음, 전화요금은 다른 분이 내줌, 교회에서 딱 한 번 지원받음	지역사회의 도움	공동체의 미풍(微風)
고독하게 사는 분들을 만나 같이 눈물을 흘림, 형제끼리 위로하며 살자고 말함, 형에게 십만원 정도 도움 받음, 다른 데서 도움을 못 받아 누님한테 신세를 지고 삶, 딸들이 조금씩 돈을 보내줌	동병상련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했을 것임, 교회를 다녀 외롭지 않고 위로가 됨	신앙에 대한 의지	
건강보험료 체납을 떠안음, 사정이 어려운 자식들에게 도와 달란 말은 하지 못함, 자녀에게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받음, 자식들이 숙식을 해결 못할 정도로 어려움, 아들이 돈을 벌어도 장기보낼 형편이 안 됨	똑같이 어려운 가족	취약한 가족 기반

코드	개념	범주
명절 때만 가족과 연락함, 아들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함, 형제들은 명절 때도 잘 안 모임, 자녀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는 한 번씩 걸어줌	유명무실한 가족	
어려워도 빚을 안 지려고 함, 어떻게든 버텨보고 견뎌보려 노력함, 사는 게 지옥 같아 일거리를 찾음, 지속적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찾는 중임,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해서 십만원씩 적금을 넣음, 대학에 가려고 검정고시를 접수함	생활의 의지	주도적 삶의 지향
복지관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함, 정상적으로 살고 외롭지 않기 위해 기 타를 배움, 머리 굴리느라 가계부를 씬, 일 안 할 때는 복지관에 갔다 음	의미 찾기	
보내주는 반찬은 아무 거나 먹음, 절제하고 아껴 씬, 저녁식사를 끊음, 생활비는 털 쓰니까 남은 정도임, 사람들이 버린 배추 껍데기, 라면, 약을 주워 먹음, 된장 고추장은 이웃에서 나눠줌, 옷도 주워서 입음, 술/커피/담배만 삼, 값이 싼 수입쌀을 사다 먹음, 허리를 다쳤지만 병원에서 딱 한 번 치료받음, 전기, 가스, 수도는 안 써서 요금을 안 냄, 수돗물을 한 방울씩 받으면 계량기가 올라가지 않음, 옆 건물의 기계 소음에 적응이 됨, 잘 쓰지 않아 집 전화를 없앴, 파지 주우려고 복지관 에 갈 시간이 없음, 어려서부터 밥을 조금씩만 먹었음, 외식은 거의 안 하고 반찬도 조금 먹음, 옷 같은 건 얻어 입음, 반찬은 고기나 생선 안 먹고 야채로만 함, 가격을 따지게 됨, 어딜 가도 돈이 들어 안 나가 고 집에만 있음, 쌀과 김치를 엄마 집과 친구 집에서 조금씩 가지고 음, 애기 옷과 운동화를 엄마가 얻어다 줌, 걸어서 30분인 엄마 집에 빨래를 가져가서 함	독하게 버티기	필사적 생존 전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 건축이든 청소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함, 집을 화투 장소로 빌려줌	부수입원 확보	
솔직히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음,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보다 싶음, 하루아침에 끊어져서 죽고 싶었음	희미해진 생존의지	체념에 빠진 일상
혼자 있는 게 더 좋음, 하루가 길어 잠으로 소일함, 휴가철이라 복지관 에 알아봐도 할 게 없음	고독한 일상	
주운 고물을 분실해도 내 몫이 아니었다고 생각함, 잘사는 사람을 미워 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고물 줌의 일이 제일 재미있음, 혼자 살아서 마음은 편함	자기합리화	
국가의 혜택을 사실상 기대하지 않음, 별거 중인 아내의 재산 때문에 기초보장 신청을 하지 않음, 낱알이 얘기해도 돈 줄 것도 아니어서 편 안한 마음임, 딸들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기 싫음	수급 기대의 포기	수급권에 대한 양면감정
소득이 높고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원함, 잔일거리라도 있으면 하는 바람임, 차상위만 돼도 걱정이 없겠음, 기초수급자 규정이 완화되기를 바람,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으면 좋겠음, 행정을 좀 잘했 으면 좋겠음	불만을 배태한 희망	

## 2.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현상에 대한 패러다임 구성

축코딩 단계에서는 각 범주들을 연결시켜 제도권 밖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으로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논리적 패러다임을 구성함으로써 그 현상의 구조와 과정을 발견(홍현미라, 2008, p.53)하였다. 이는 빈곤의 현상에 작용하는 다양한 조건들로 말미암아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전략과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

### 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을 유인하는 원인들은 ‘결박당한 개인 상황’과 ‘수급권을 막는 장벽’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정리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보호가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일을 나간다가 주거지를 옮기는 일이 매우 곤란하거나, 주거지를 옮길 경우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될 것을 걱정하는 등 자신의 상황을 불기항력적인 상태로 느끼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중년 이상의 연배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8년 동안 중풍 걸려서 돈 한 푼 수입이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병들었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거죠. 치료라고 해봐야 집에서 왔다갔다하는 거죠. 병원도 못 다녀.(59세, 남)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다수의 경우 소득이 파악되는 직계가족의 존재 때문이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과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그들의 사정이 너무나도 궁핍하기 때문에<sup>2)</sup> 생계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기초수급 신청을 해봤는데, 안되는 게 뭐냐면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아이가 \*\*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10년 정도 단절되었는데, 그 아이가 소득이 높나 봐요.

---

2) 이런 사정을 호소한 연구참여자들은 부양의무자 중 존속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보다는 비속(자녀)의 소득이 파악되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였다.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58세, 남a)

연구참여자들의 수급권을 막는 장벽은 이밖에도 수급 신청 또는 탈락 사유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수급이 중단되었으나 소득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

그전에는 수급자였다가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봉제공장. 다녔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간 기한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8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 한 달 동안 생각을 했어요.(70세, 여)

이상과 같이 연구참여자를 움짱달짝 못하게 만드는 개인적 상황이나 기초보장 수급권의 진입을 방해하는 다양한 조건들은 비수급 빈곤의 현상을 전제하는 조건으로서, 본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에서 인과적 조건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현상(Phenomena)

위와 같은 인과적 조건들은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구체적 삶의 현상들을 만들어 낸다. 연구참여자들은 ‘빈약한 사회자본’, ‘심리적 위축’, ‘악화되는 경제력’, ‘절대빈곤의 현실’이라는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의 중심에는 결국 인과적 조건이 빚어낸 궁핍함이 자리잡고 있고, 여기서 도출된 범주들은 이러한 빈곤 현상의 다각적 표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빈곤 자체로 인해 자신의 처지에 도움을 줄 만한 협력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빈곤 탓에 매우 취약해진 가족관계 및 교우관계(交友關係)와 같은 상황들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곤란하게 하여 빈곤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새아버지의 소득, 친아버지의 소득 때문에) 아빠한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22세, 여)

나는 또 노인정에 가서 안 놀아요 거기서도 회비 내야 되죠, 커피 사다 봐야 되지. 여기서도

서로 사 주고 사 먹고 해야 친구를 사귀지. 그러다 보면 그 돈도 무시 못 하거든요.(80세, 여)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빈곤한 처지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58세, 남a) 라는 발언은 이런 상태를 상징한다. 이런 심리적 위축 상태는 ‘세금은 내지 않는 국민이니 바랄 것도 없고, 주면 주는 대로 고맙다고 살아야 한다’(76세, 남)이고 자신의 수급 탈락을 합리화하며 지역사회의 소소한 지원에 만족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귀결된다.

직접적인 빈곤의 경험은 진행 중인 빈곤화와 절대빈곤 상태의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근로를 통해 약간의 저축이 있는 경우, 낮은 소득으로 인해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주거비의 부담을 경제력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유의할 점은 빈곤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절대빈곤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잔고가 바닥이 아닌 경우에도 지출 수준은 최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이라는 현상은 큰 차이가 없었다. 절대빈곤의 현상은 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긴급상황이나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집세 내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59세, 남) 만성화된 빈곤 상태를 유발한다. 특히 장년층 이상의 연구참여자인 경우 본인의 질환, 청년 연배인 경우 어린 자녀의 급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포 수준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집을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랬더니 복덕방에서 잘 얘기해 줄 테니 천만 원을 구해 보래.  
(중략) 누가 (집을) 산다고 할까봐 그제 걱정이예요. 길에서 사는 인간이 될까 봐.(76세, 남)

며칠 전에 얘기가 아팠는데... (눈물) 지금도 눈이 붓고 그레 가지고 열도 엄청 났는데,  
제가 병원에 못 데리고 갔어요.(22세, 여)

연구참여자들은 이상과 같은 삶의 현상들에 대처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구조적 조건으로서의 맥락과, 현상의 양상을 조절하고 전략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외부적 요인으로서의 중재적 조건(Strauss & Corbin, 1998)을 분석할 수 있다.

## 다. 맥락(Context)

비수급 빈곤의 경험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조건은 매우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개인 또는 이들의 인적 환경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맥락적 조건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범주를 ‘생존권의 배제와 불공평한 세상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낮은 소득은 노력 여하와 관련 없이 삶의 현상에서 맥락적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었다. 통장 봉급(58세, 남a), 기초연금(77세, 남), 불규칙한 일용직(58세, 남b), 노인 일자리 사업(80세, 여) 등 20만원 안팎의 소득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고물이나 파지 수집(83세, 여)의 경우, 하루 종일 일해도 월 소득 십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수증 자료(76세, 남)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하여 재선정에서 탈락하게 된 경우(76세, 남)가 있었다. 또한 아래의 사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다른 비공식적 지원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회에도 이웃구제 헌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난 혜택이 안 돼. 교회에서도 조사해서 주는 건데 하물며 난 그런 것도 못 받으니까. 난 완전히 사각지대에 몰린 거야. 실패를 파악하는 사람도 없고 당신은 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요즘 애들 키워야 집에 도와줄 니까? 돈 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59세, 남)

그리고 연구참여자들 중 다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사실에 대해 불공평함을 하소연하였다. 이들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웃의 생활수준과 수급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거의 다 수급자예요, 우리 빼고”(59세, 남)와 같은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보다 사정이 나은 이웃 주민이 수급자인 것을 발견함으로써 법적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았다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한몫(58세, 남b)을 하고 있었다.

차상위라도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안 온다냐? 이게 도대체 해준다는 거야 뭐야. 대상이 되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논밭이 있어,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 패물도 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곳은 아무나 올 곳이 아니고, 이장들이나 아는 사람 통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지.(72세, 여)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일당(70세, 여)나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 겪게 되는 애로사항들(59세, 남) 때문에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구조적 조건들은 비수급 빈곤이라는 삶의 중심현상들과 결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행위 전략이 개별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도록 하는 맥락으로 판단하였다.

## 라.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중심현상을 조절하고 대처 전략에 개입하는 중재적 조건들은 ‘공동체의 미풍(微風)’, ‘취약한 가족 기반의 두 범주로 분류되었다. 전자(前者)는 현상을 완화하고 긍정적 전략을 촉진하는 중재 역할을, 후자는 악전고투(惡戰苦鬪)의 요인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공동체의 미풍’을 통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소소한 원조가 주어짐으로써 식생활 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미미한 주변의 사적 도움과 이웃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공감도 개념적으로 포함되었다. “외로운 건 없어요 제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니까.”라고 한 연구참여자(64세, 남)와 같이 종교적 위안도 심리적으로 긍정적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에서 박스에다가 참치, 햄, 짜장라면 이런 거 보내 주고 그리고 푸드뱅크에서 짜장라면, 커피 이런 거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먹는 건 어떻게 못 먹느냐 이거야. 그래서 먹는 거는 걱정이 없지. 돈이 문제지.(72세, 여)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게 하는 중재 요인이었다. 미혼모인 연구참여자(28세, 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을 떼안았다”고 말하며 가족 부양의 부담을 드러냈고, (72세, 여)는 마찬가지로 어려운 자녀의 형편을 고려하여 자신은 ‘잘 지낸다고 말하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심지어 연구참여자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한 자녀도 있었다.

그 늬이 가끔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잘 곳이 없어서 어디 가서 자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용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경찰이 잡아도 집에 못 들어간대요. 어디서 자야 되느냐고 이런 소리를 할 적에 눈물이 안 나겠어요? (눈물) 내가 거기다가 대고 돈 십만원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눈물이 말도 못하게 나오더라고.(58세, 남b)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정에서 현상과 전략 사이를 중재하는 이러한 조건들은 지역사회의 역할이 가족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양의 의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로써 연구참여자들은 여타의 사회구성원들이 취하는 삶의 전략과는 사뭇 다른 비현실적 전략의 양면성을 나타낸다.

#### 마. 전략(Action Strategies)

연구참여자들의 행동 전략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주도적 삶의 지향을 위해 부채를 회피하고 적금을 붓거나 학업을 계획하는 등의 생활의 의지를 보였고, 일부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2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백 몇십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십만원씩 딱딱 적금 들어 놔요. 왜냐면 재계약해야 하니까.(80세, 여)

오히려 거꾸로 제가 복지관에다가 봉사를 많이 하죠. 방학 때는 봉사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안 하면 누가 못하니까.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힘이 들어요.(58세, 남a)

그런데 이 범주에서 드러난 ‘어떻게든 버티 보고, 견뎌 보려고 노력을 한다’(58세, 남a)는 표현은, ‘필사적 생존 전술로 명명한 범주에서 독하게 버티고 부수입을 개척하려는 비인간적 생존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념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의 필수 생활 자원에 대해서도 ‘안 쓰고 안 내는’ 비현실적 지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은 절대적 빈곤 상태로서의 중심현상에서 필연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 전략이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지원은 ‘미풍(微風)’ 수준이었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은 이러한 비현실적 전략을 더욱 촉진

하도록 중재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배추 껍데기 다 버려요. 그걸 주어다가 소금에 절여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된장 고추장 이웃에서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라면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1년 지난 것, 6개월 지난 것. 약도 말도 못하게 버려요. 우리 집에 전부 다 주어 놓은 거지 산 게 없어요. 이것(입고 있는 옷)도 주운 거예요. 사는 건 술, 커피, 담배.(76세, 남)

안 나가고 집에만 있거든요. 어딜 나가더라도 버스비 드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생활이 안 되면서 만날 사람도 없고 나가게 되면 돈이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허튼 돈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28세, 여)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에 상관없이 부업을 통한 소득 증대에 관심을 보였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58세, 남b)는 태도나, 거주 공간을 화투 장소로 내주고 부수입을 챙기는(70세, 여) 식의 필사적인 소득 확보 전술 외에도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며 비수급 빈곤 현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일자리 조금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드물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옛날에는 어려우면 봉투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조금 이렇게 부업을 했는데,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괜찮을까 하고 찾는 중이에요.(64세, 남)

## 바. 결과(Consequences)

연구참여자들의 행동 전략에 따른 결과는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현재의 상태가 말해주듯 ‘개선보다는 ‘적응’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비수급 빈곤 상태의 경험과정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코드와 개념들은 ‘체념에 빠진 일상’, ‘수급권에 대한 양면감정’ 등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우선 ‘체념에 빠진 일상’의 범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 희망을 포기하고, 고독한 일상을 지내고 있으며, 심지어 삶에 대한 의지마저 희미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수급의 포기는 제도의 변화나 유연성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뜻이고, 수급 신청의 과정에서 낙담하고 불편했던 기억

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망은 '자살을 연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에서 좋은 혜택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크게 기대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는 사실 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58세, 남b)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가 보다, 자살하는가 보다 싶어요. 아휴, 사는 게...(83세, 여)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신상 변동이나 수급 조건 등 제도의 개선에 대한 변화를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러한 희망이 긍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차상위만 돼도 걱정 없다'(80세, 여)는 식의 현실에 대한 반어적(反諷的) 표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래의 사례는 그나마 가장 희망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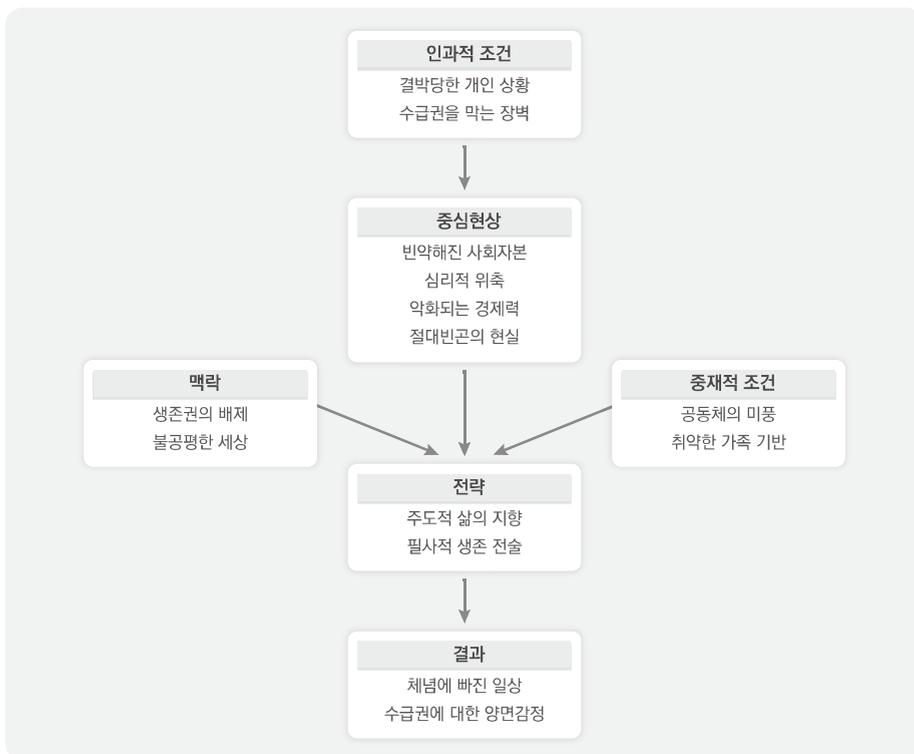
몸 하나는 불편한 것은 없는데, 불만이 있죠. 소득이 불만이 있고, 더 업그레이드된 일을 찾아서 하고 싶기도 하고.(58세, 남b)

결국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이상과 같은 조건들의 개입과 필사적 생존을 위한 전략 행동의 결과로 현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급권에 대한 양면감정' 범주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사회관계 단절로 인해 적응해야 하는 외로움과 서글픈 현실에 대한 자기합리화의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다.

취미생활이요? 고물 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 얼마나 재미있다고요. 재활용 모으는 데서 들어 보거나 발로 차면 예감이 와요. 플라스틱 들어보면 살짝 들어 봐서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또 들어 있어요. 그런 거 뜯고 앉아 있으면 재미있어요.(76세, 남)

이러한 이론적 과정의 결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비수급 빈곤 과정의 중심현상들과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 전략들을 정당화하는 순환적 메커니즘의 작동을 연상시킨다. 이상과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경험과정 분석을 통해 이들의 삶의 현상에 관한 패러다임을 아래와 같이 이론적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비수급 빈곤층의 경험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sup>3)</sup>



### 3. 핵심범주의 도출

연구자료에서 나타난 비수급 빈곤 현상을 선택코딩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14개의 범주를 아우르는 핵심범주는 '비인간적 상황에 필사적으로 적응하기'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양가족과 같이 사는 등 더 높은 소득이나 자유로운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공공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 보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으나, 정보 부족 또는 사실상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말미암

3) Creswell(2012, p.428)의 모형을 참고하였다.

아 차상위조차도 선정되기 어려웠다. 약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상태에서도 탈락하는 경험을 하였다. 결국 절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실질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국가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소득 수준에 이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현실적인 지출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궁핍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이 하여금 외부 활동을 축소시키고 자존감의 손상이나 열등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기회를 더욱 차단시키는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수급권 탈락은 주변의 수급자와 비교하여 불만을 갖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수급 자격을 근거로 하는 다른 공사(公私) 지원책의 이용을 제한시켰다. 이러한 ‘All or Nothing’의 체계는 이들로 하여금 빈곤정책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였고, 여기에 빈곤을 공유하는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절대빈곤에 대처하는 필사적이고 치열한 삶의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기술들은 간단히 말하면 쓰지 않고 버티며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일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미미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의지함으로써,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소득을 향상시키고 나름의 의미 부여를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러한 약간의 노력에 의해 개선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상에 대한 태도는 반신반의에 가깝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너무 많은 배제와 빈곤을 체험했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은 수급에서 탈락한 사각지대의 외로운 배회자라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공공의 지원을 거의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사람과 물질이라는 자원의 극단적인 결핍에 필사적으로 적응하며 생존하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또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존재하던 피상적인 가정들을 입증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경험 자료를 근거로 삼아 실체이론을 확립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비수급 빈곤층의 경험

과 사회관계적 조건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참여자 개별 면접을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2차 자료에 의존한 양적 분석이 읽어 내지 못하는 삶의 생생한 현실을 삶의 과정에 따른 이론적 모형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빈곤층의 구체적 삶을 주제로 한 기존의 질적 연구들은 대상별 연구라 할지라도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층 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어서, 비수급 빈곤층의 구조적 환경과 정서적 문제를 다룬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심리적 디스트레스’(이기연, 박현정, 2015) ‘참기 힘든 충격들’(이광원, 부성은, 김영채, 2016), ‘떠밀려남, 버터살기’(권지성, 한가영, 2008), ‘최후의 주저되는 선택’(백학영, 조성은, 2014) 등이 그 개념과 범주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인 영향을 다룬 논의들(하경희, 강병철, 2013; 김윤영, 권진, 2015)은 빈곤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자살 충동과 같은 극단적 감정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로 지지된다. 김진우(2012)의 연구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연구참여자들이 복지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본 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긴급지원을 받은 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회복됨으로써 적절한 복지제도가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화로 작용할 수 있었음은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각지대의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암시한다.

전술했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영역뿐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이 처한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더하여 보다 체계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생존 과정을 보고자 하였다. 이는 공공부조 제도 바깥에 위치한다는 존재론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해부하고 이해의 틀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바탕을 둔 수준별 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 수준에서 비수급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취약계층으로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지지체계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 자신들의 처지가 최악이라고 호소하면서도 어떻게든 삶을 유지시키는 생활방식에 스스로를 합리화함으로써 체념과 적응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민’, ‘지루함’, ‘불공평감’, ‘고독’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전반적으로 체념적이고 지친 삶의 표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비인간적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삶의 구체적 전략들은 강인한 의지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어서,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의 부정적 특성이나 소득의 부족에 기인하는 '자포자기와 같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다른 수준의 환경적인 면과 결합함으로써 유발되는 개인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논의와 제도적 함의는 기존의 공공부조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제시되어 온 내용들과 일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김미곤(2003)은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문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최근 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약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은 큰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 기준인 상대빈곤선을 일괄적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강력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게 제시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신청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약간의 추가적 행정력이 소모되더라도 수급 탈락자에 대한 정기적, 지속적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비수급 빈곤의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 의료비의 문제는 비수급 빈곤층의 절대빈곤을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드러났으며, 개인 경제력을 악화시킴으로써 미래의 희망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공공 자원 또는 인프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인 수준의 마지막 제언은 경제력의 유지에 관한 것이다. 미소금융처럼 개인의 경제력 회생을 위한 금융복지제도를 비수급 빈곤층과 같은 최빈곤층에게 더욱 개방적으로 소개한다면,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참여자들의 문제 상황은 미시적으로 가족과 경제적, 정서적 유대를 깊이 가지지 못하는 데에서, 거시적으로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공기

관이나 종교기관, 이웃 주민 등이 식료품 등의 소소한 원조를 함으로써 그러한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관계를 맺기가 두려워 고독한 외톨이로 전략적 생존방식을 취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지 개입이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가 그 좋은 예이다. 서울시는 약 1,100개의 복지시설들을 마을 지향의 복지시설로 변화시키기 위해 조율해야 할 전제 조건들을 고려 중이며, 대안모델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의 기능 재정립이 서울시의 모든 복지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김윤영, 2014). 복지전달 체계의 다각화 내지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방식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하면 정부 수준의 조직이나 개별 기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체계는 종교기관이다. 이정기(2015)는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으며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종교기관을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적 결손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제도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가들보다 지역사회를 잘 파악하고 있는 비전문적 자원봉사자들이 사각지대에 더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들과 함께 함으로써 기성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확장 및 재설정되며, 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복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사회적 수준에서 살펴본다면, 연구참여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보유 재산과 근로 능력 등과 같은 탈락 사유의 기준들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결같이 불만 내지 신뢰를 갖지 못하였다. 특히, 수급자로 선정된 이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높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박탈감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 국가의 공공부조 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수급 명단에 오르지 못함으로써 여러 민관(民官)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공공근로에 반복 참여를 제한받아 생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수급권

의 제한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유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법의 개선 상황과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 중의 하나는 통합 급여의 한계인 ‘All or Nothing’의 문제점이었다.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제도 초기부터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연계급여 방식이 포함된 욕구별 개별 급여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히 의료와 주거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냈는데, 개편된 현행 개별급여 제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곧 필요할 것이다. 수급권의 근거가 되는 최저생계비 제도 폐지에 따른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부처별로 파편화된 급여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수급권 위축을 기인할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장 욕구가 큰 의료급여는 소폭 조정에 그친 점 등에 대해서 향후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의 국가사회적 대처방안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재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당사자들의 박탈감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 강화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저소득 근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활 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더 질 높은 근로로 유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달 체계의 통합성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취업 연계 및 근로 시간대의 가족 보호 서비스 등이 유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충분성과 지속성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이 참여하고 있는 소득지원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제도적 지원책과 자원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의 단계별 이행 지원과 국가복지의 확대라는 실현가능능력(capability)의 회복책(김교성, 노혜진, 2011)은, 탈빈곤에 앞서 비수급 빈곤층의 비인간적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구인희, 백학영. (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pp.175-204.
- 권지성, 한가영. (2008). 쪽방 거주 노인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 연구*, 2(1), pp.63-84.
- 김경희, 박근혜. (2013). 빈곤청소년의 꿈과 미래 설계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1), pp.113-134.
- 김교성. (2011).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18(1), pp.43-82.
- 김교성, 노혜진. (2011). 빈곤의 세대간 탈피 경험. *사회복지연구*, 42(1), pp.243-278.
- 김문길. (2012).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126, pp.1-8.
- 김미곤. (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83, pp.26-35.
- 김미곤. (2014).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7, pp.23-29.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등. (2011).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양시현, 최현수, 김계연, 고연분, 등. (2005). 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 및 계측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염주희, 정희선, 최준영, 권지성, 이은미, 등. (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 (3차)*.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박능후, 노대명, 김혜련, 김유경, 배화옥, 등. (2009). 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연구: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원섭. (2013).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p.1-41.
- 김윤영. (2014). 지역복지 생태계와 한국사회의 미래.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학술발표 토론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미발행.
- 김윤영. (2015). 비수급빈곤층의 실태와 정책방향. *복지이슈 Today*, 22, 서울복지재단.
- 김윤영, 권진. (2015). 생명의 관점에서 본 기초법 비수급 빈곤층의 삶. *생명연구*, 35(1),

pp.67-99.

- 김인숙. (2012). 근거이론 담론과 사회복지 지식형성. *비판사회정책*, 34, pp.77-128.
- 김진우. (2012).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 성과의 의미: 지원대상자 삶의 변화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2), pp.103-128.
- 김태완, 최현수,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손창균, 등. (2014).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혜진. (2012). 가족 안에서 여성은 어떻게 빈곤을 경험하는가?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2), pp.67-101.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56, pp.253-277.
- 문진영. (2015).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연구. *비판사회정책*, 46, pp.202-236.
- 박능후.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35(4), pp.271-295.
- 백학영, 조성은.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에 대한 태도와 탈수급 전략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pp.177-212.
-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신영석, 이현주, 이연희, 신현웅, 정형선, 윤석준. (2004).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정빈. (2015). 여성장애인의 이혼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3), pp.481-501.
- 여유진, 김미곤, 김문길, 정재훈, 홍경준, 송치호.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상균, 구인희, 오지현, 송치호.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등. (2008).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홍식.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결정 요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7, pp.5-31.
- 이광원, 부성은, 김영채. (2016). 척수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

장애인복지학, 31, pp.111-137.

- 이기연, 박현정. (2015). 저소득 한부모 가구주의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복지연구*, 46(1), pp.59-83.
- 이정기. (2015). *기독교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만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정기, 문진영. (2015).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생명연구*, 35(1), pp.13-65.
- 이태진, 정홍원, 강신욱, 김진수, 김태완, 남상호, 등. (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강신욱, 김안나, 김태완, 노대명, 박세경, 등. (2007).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백화중, 신영석, 김안나, 박능후, 이선우, 등. (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숙. (2015).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한국 사회복지학*, 67(4), pp.251-277.
- 최정경, 이광호. (2015). 이혼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버지의 생활세계 경험의 본질과 의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pp.5-30.
- 탁장한, 박정민. (2014). 쉼터노숙인 빈곤대처방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빈곤문화적 특질과 강점관점적 속성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4), pp.357-380.
- 하경희, 강병철. (2013). 빈곤가구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Distress)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2), pp.115-137.
- 허선, 권선진.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장애인 가구의 규모 추정 및 생활실태. *재활복지*, 13(1), pp.85-109.
- 홍경준. (2003).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77, pp.42-56.
- 홍경준. (2011). 공적 소득이전이 분배효과 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 pp.65-88.
- 홍현미라. (2008). 근거이론 연구.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pp.9-65)에서. 서울: 학지사.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G. Room (Ed.), *Beyond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cy Press.
- De Haan, A. (2000). Social exclusion: Enriching the understanding of deprivation.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2(2), pp.22-40.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7).
- Creswell, J. W. (2012). *Educational Research (fourth edition)*. Boston: Pearson Education.
- Levitas, R. (1999). Defining and measuring social exclusion: a critical overview of current proposals. *Radical Statistics*, 71, pp.10-27.
- Padgett, D.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 Anchor Books.
- Strauss, A., & Corbin, J. (1996).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신경림 공역), 서울: 한울. (원서출판 1990).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Newbury Park, London: Sage.

이정기는 서강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자원봉사론과 종교사회복지이며, 사회복지조직의 커뮤니케이션과 장애인(및 가족)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freexist@sogang.ac.kr)

김윤영은 영국 University of Bristol에서 사회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이자 서강대, 상명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정책 분석, 사회적 이동성, 복지와 빅데이터, 계량연구 등이다. (E-mail: i180cm70kg@gmail.com)

## A Grounded Theory of Non-take-up Group's Life Process

**Lee, Jeonggi**

[Sogang University]

**Kim, Yun Young**

[Sogang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social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in the reality of non-take-up group by understanding the group's current situation and adaptation toward povert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12 people from the group who do not benefit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NBLSA, enacted in 1999) were interviewed to gather data regarding why they do not benefit from NBLSA, their actual living conditions, their ways of adaptation toward poverty and emotional changes were collected, which were then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14 categories were drawn: 'the individual situation of being tied up', 'obstacles that block benefit eligibility', 'impoverished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contraction', 'deteriorating economic strength', 'the reality of absolute poverty', 'exclusion from the right to life', 'the unfair world', 'breeze of the community', 'onerous family circumstances', 'self-directed orientation of life', 'desperate survival tactics', 'becoming lethargic', and 'the ambivalent feeling towards benefit eligibility'. These categories were theorized according to the paradigm of experience process based on the central phenomenon of exclusion from public assistance and the consequent strategy in response to the phenomenon. The main category was 'desperate adaptation to inhumane conditions'. The outcomes were arranged by how the diverse circumstances influence the individual, local, and national level and the counterplan for each level was discussed.

---

**Keywords:** Blind-spot, Poverty Problem, Grounded Theory, Absolute Poverty, Public Assistance, Health Benefit, Non-take-up